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Developing Print Journals' Cooperativ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rogram

곽승진 (Seung-Jin Kwak)**, 최재황 (Jae-Hwang Choi)***
김정택 (Jeong-Taek Kim)****, 박옥남 (Ok Nam Park)*****
김환민 (Hwan-Min Kim)*****

목 차

1. 서론	5. 이해관계자 분석
2. 선행연구	5.1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에 대한 인식
3. 연구방법	5.2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에 대한 이해관계자 영향력
4. 설문결과	5.3 활성화 방안
4.1 인쇄학술지 수집, 보존, 폐기 현황	6. 결론 및 제언
4.2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수요	
4.3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	

초 록

본 연구는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 기능을 수행하는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에 대하여 수요조사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 조사를 통해 공동보존센터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ESLI 참가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로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을 위해 협의체 구성 방안, 기탁 학술지의 소유권, 보존 대상 인쇄학술지 범위 및 보존센터 유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의 타당성 확보와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suggestions to develop a cooperativ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rogram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 in-depth study was conducted parallel to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e study found that a high number of KESLI members recognizes the necessity of the cooperativ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print journals. The study also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cooperative preservation center for print journals—the development of councils, the ownership of journals, the scope of journals to be collected, and the form of the national preservation center.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utilized as the model for the cooperativ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print journals suitable for Korean circumstances.

키워드: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공동 보존, 도서관, KESLI

Print Journal, Cooperative Preservation Center, Cooperative Preservation, KESLI

- *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협력기관 소장 인쇄학술지 공동보존 및 활용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jkwak@cnu.ac.kr) (제1저자)
-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oi@knu.ac.kr) (공동저자)
- **** 배재대학교 도서관 사서(kjt@pcu.ac.kr) (공동저자)
-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ponda@smu.ac.kr) (공동저자)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해외정보실 선임연구원(mrkim@kisti.re.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3년 4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5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5월 13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337-357,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337]

1. 서론

학술정보량의 증가로 대부분의 도서관은 자료 보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용도가 높지는 않으나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를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용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윤정옥, 심경, 박동철 2007; 이선희, 윤희운 2011).

디지털 형태로 된 학술정보자원의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고 디지털 자원에 대한 도서관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인쇄 매체 아카이빙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자저널이 지니는 여러 위험 요소에 기인한다.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전자저널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독 중단 또는 출판 중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자원의 장기 보존 전략이 지니는 취약성 및 비용 문제(최호남, 이응봉 2005)를 고려할 때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이전 제공하던 학술정보의 접근을 허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학술정보의 망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서관은 디지털 매체를 인쇄본에 대한 장기 보존용 대체물이라기보다 접근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인쇄학술지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대처는 학술정보 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도서관은 매년 증가하는 인쇄학술지 관리 및 보존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폐기를 꺼리는 도서관 문화, 장서의 양이 곧 도서관의 우수성을 대변한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건물이 소장할 수 있는 장서의 수가 이미 초과한 도서관이 있으며 이는 건물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2012 거점 국립대학 도서관의 최대 적정 소

장 책 수 및 소장 현황'에 따르면 9개 국립대학 중 6개 대학의 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장서 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집 자료의 관리 및 보존이라는 이중 목표는 인쇄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부분적으로 달성되고 있으나 이 또한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공동보존센터의 구축을 통해 인쇄학술지의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보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에 대한 수요 및 운영 방식을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공동보존센터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 연구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공동보존서고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은 무엇보다 도서관간의 협력이 절실한 바, 이해관계자의 수요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조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KESLI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얻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인쇄학술지의 국가적 공동 보존과 공동 활용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강현민(2006)은 공동보존서고에 대하여 미국, 핀란드 및 국내 국립중앙도서관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공공

도서관 협력망 운영 실태 자료집 2005”를 기반으로 국내 공공도서관간 자료 보존 협력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보존도서관’ 및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최상위 단계에는 ‘국가보존도서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긴급 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자료의 복권을 소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보존도서관’은 ‘공동보존도서관’으로부터 위탁 운영권을 위임받고 국가문헌, 희귀본, 귀중서, 고서 및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국가보존도서관’의 역할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담당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단계는 ‘공동보존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대표 도서관이 ‘공동보존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한된 이용자 서비스를 수행한다. ‘공동보존도서관’은 상호협력에 의해 운영되며 이용률이 낮은 자료, 준현용 자료, 참여도서관의 제작, 폐기 자료를 수집한다. 3단계는 단위 도서관으로 각 도서관의 협력을 수행하는 역할 및 개방적 이용자 서비스 및 대출 서비스를 담당할 것을 제시하였다. 가장 상위 도서관으로 갈수록 보존의 역할을 강조하고 활용성을 축소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보존도서관’ 및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 문헌 리포지토리 구축, ‘국가보존도서관’ 및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을 위한 법,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곽동철, 심경, 윤정옥(2007)은 해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구축을 위해 미국, 호주, 스코틀랜드 등 7개 공동보존서고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공동보존서고는 대학 외부에 위치하

며, 창고형 고밀도, 목적형 보존서고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용도는 높지 않으나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인쇄 자료를 중심으로 보존하고 있었다. 비용은 보존서고의 참여 기관이 부담하고 있었으며, 소유권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공동보존서고 구축을 위해 공동보존서고의 형태 및 위치, 참여 기관의 수, 주체, 소유권, 이용자의 범위, 접근 시스템 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윤정옥, 심경, 곽동철(2007)은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합한 공동보존서고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는 한 부를 보존하며, 이용을 최적화하는 시설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폐쇄된 건축물을 저가로 매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의 목적용 건물의 신축, 모바일 서거나 창고형 고층 서가와 같은 고밀도 저장 시설의 구축, 온습도 및 조명 등의 환경 제어와 설비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존 자료에 대해서도 인쇄 자료를 중심으로 한정할 것과, 관내 이용 기록을 조사하여 이용도가 높지 않은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할 것 등의 운영방침을 제시하였다.

황혜경, 이선희, 최호남, 서혜란(2010)은 국내 정보자원 공동 보존과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하 KISTI) 정보자원 수집 및 보유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학술지, 연구보고서, 데이터 셋 아카이빙 등 정보자원별 해외 보존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보존자료관 설립을 KISTI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공동보존자료관 구축이 정보자원 유형의 다

양화에 대응,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에 대응, 국내 연구도서관의 정보자원 관리 및 KISTI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대학도서관과 과학기술 전문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자료 보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ISTI의 보존 역할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공동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이선희, 황혜경, 류범중(2011)은 정보자료 보존 전략의 해외동향, KISTI 정보자원 보유 현황, 보존 관리 정책을 조사하고, KISTI 정보자료 보존 공간을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의 KISTI 정보자료의 증가량을 기초로 분리형, 절반 절충형, 폐가제 치중형, 완전 폐가제형 등 형태별로 정보자료 보존을 위한 필요공간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2030년에 이르면 공간의 부족이 심각함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존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최재황, 광승진(2013)은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프로그램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의 WEST(Western Regional Storage Trust), ASERL(Association of Southeastern Research Libraries),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영국의 UKRR(UK Research Reserve)의 보존 정책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존 시설 운영 방식, 보존소에 저장된 인쇄학술지의 이용 방식, 보존 자료의 선정, 보존 기간, 소유권과 비용, 참여 및 철회, 목록 등의 요소를 도출하고 비교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서관의 공간 부족, 체계적인 보존의 필요성, 디지털 형태 학술정보원의 위험 요소로 인한 학술정보 공동 보존의

필요성이 입증되었으며, 공동 보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및 모형 개발에 필요한 요소가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는 해외 사례 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공동보존 서고의 구축은 무엇보다 참여 도서관의 협력이 절실한 바, 이해관계자의 수요 및 필요성,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에 대한 현황 및 수요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별 인쇄학술지 수집, 관리, 보존, 폐기 현황을 조사하고,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월부터 한 달간 KESLI 참가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1) KESLI 참가 기관의 인쇄학술지 수집, 보존, 폐기 현황, 2) 수요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3)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응답한 사서는 총 149명으로 이들의 소속기관은 대학도서관이 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소 30명, 기업 9명, 공공기관 15명, 의료기관 14명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26%(39명), 여성이 74%(110명)로 나타났다.

포커스그룹 면담은 KESLI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2012년 6월 국립대 도서관 사서 2명, 사립대 도서관 3명, 의료기관 사서 1명, 공공기관 도서관 사서 3명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1〉 설문응답자 현황

근무경력	빈도(비율)	기관유형	빈도(비율)	봉사대상자수	빈도(비율)	기관소재지	빈도(비율)
1년 미만	3(2)	대학도서관	81(54)	500명 이하	40(27)	서울, 인천, 경기	72(48)
1년-3년	12(8)	연구소	30(20)	501-1,000	24(16)	강원	2(1)
3년-5년	13(9)	기업	9(6)	1,001-5,000	32(22)	대전, 충남, 충북	37(25)
5년-10년	29(19)	공공기관	15(10)	5,001-10,000	28(18)	광주, 전남, 전북, 제주	12(8)
10년 이상	92(62)	의료기관	14(10)	10,001-20,000	15(10)	대구, 경북	12(8)
				20,000명 이상	11(7)	부산, 울산, 경남	14(10)
계				149(100)			

4. 설문결과

4.1 인쇄학술지 수집, 보존, 폐기 현황

인쇄학술지 수집, 보존, 폐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인쇄학술지 구독 현황, 보존 공간 활용률, 사용 가능한 인쇄학술지 보존 공간의 정도, 인쇄학술지 보존 공간의 확장 계획, 인쇄학술지 폐기 현황 및 폐기 계획, 공동 활용 보장 시 소장 인쇄학술지 폐기 의사, 폐기 이유, 장애 요인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 설문에 응답한 149개 기관의 인쇄학술지 평균 구독 현황은 〈표 2〉와 같이 국내학술지 340종, 국외학술지 179종으로 총 519종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 가능한 인쇄학술지 보존 공간(서가 공간)에 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가 46%(69개 기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가 21%(32개 기관)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결과를 5점 척도 기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1.37점으로, 이는 전체 응답 기관 중 인쇄학술지 보존 공간에 여유가 있는 기관은 31.37%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대체로 여유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인쇄학술지가 지금처럼 입수된다고 가정할 때 현재 보존 공간에서 인쇄학술지의 수장 가능 기간은 “3~4년 이하”가 34%(50개 기관) 및 “5~6년 이하”가 24%(36개 기관)로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2〉 설문응답기관 인쇄학술지 평균 구독 현황

기관유형	구입			기증			총계		
	국내 학술지	국외 학술지	계	국내 학술지	국외 학술지	계	국내 학술지	국외 학술지	계
대학	180	207	387	374	43	417	554	250	804
연구소	32	58	90	47	50	97	79	108	187
기업	36	38	74	11	2	13	47	40	87
공공기관	21	64	85	59	22	81	80	86	166
의료기관	4	60	64	128	44	172	132	104	236

〈표 3〉 인쇄학술지 보존 공간의 여유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4	3%	14	9%	30	20%	69	46%	32	21%	149

〈표 4〉 인쇄학술지 보존 공간의 수장 가능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1~2년 이하		3~4년 이하		5~6년 이하		7~8년 이하		9~10년 이하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24	16%	50	34%	36	24%	15	10%	24	16%	149

인쇄학술지 보존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표 5〉와 같이 “그렇지 않다”가 40% (59개 기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부정적 방향(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기관의 비율은 53% (79개 기관)로 유보적 입장을 보인 27%(40개 기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기관이 인쇄학술지 보존 공간의 확장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5점 척도 기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8.59점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폐기 현황에 대해서는 116개 기관(78%)이 최근 3년 동안 인쇄학술지를 폐기한 적이 없다

고 응답하였으며, 인쇄학술지 폐기 계획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45개 기관(30%)을 제외하면 폐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관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기관보다 약간 많았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5점 척도 기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2.51점으로, 이는 전체 응답 기관 중 52.51%의 기관이 인쇄학술지 폐기를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6〉 참조).

인쇄학술지를 폐기한다면 주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표 7〉과 같이 “공간 부족”이 63% (94개 기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쇄학술지의 낮은 이용률, 관리 예산과 인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인쇄학술지 보존 공간 확장 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1	1%	29	19%	40	27%	59	40%	20	13%	149

〈표 6〉 향후 인쇄학술지 폐기 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13	9%	44	30%	45	30%	39	26%	8	5%	149

〈표 7〉 인쇄학술지 주요 폐기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

공간부족		관리 예산 부족		관리 인력 부족		낮은 이용률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94	63%	2	1%	2	1%	51	34%	149

〈표 8〉 공동 활용 보장 시 소장 인쇄학술지 폐기 의사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12	8%	55	37%	48	32%	28	19%	6	4%	149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가 자관 소장 인쇄학술지를 영구 보존하고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자관 소장 인쇄학술지를 폐기할 의사가 있느냐 문항에 대해서는 〈표 8〉과 같이 “그렇다”가 37% (55개 기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긍정적 방향(매우 그렇다, 그렇다)으로 응답한 기관의 비율은 45%(67개 기관), 부정적 방향으로 응답한 기관의 비율은 23%(34개 기관)로 많은 기관이 자관 소장 인쇄학술지의 폐기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4.2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수요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위해 공동보존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필요이유, 소멸 폐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의 필요성 및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 참여의사 및 참

여이유, 공동보존센터의 기여 정도를 위주로 조사하였다.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공동보존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76%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74.83점이다(〈표 9〉 참조).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인쇄학술지의 영구 보존”을 가장 우선순위로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쇄학술지의 공동 이용 활성화”, “참가 기관의 공간 문제 해결”, “다양한 학술지를 확보함으로써 가용 범위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인쇄학술지 보존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쇄학술지 소멸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68%의 응답자가 소멸 폐

〈표 9〉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40	27%	73	49%	31	21%	5	3%	-	-	149

〈표 10〉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필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

가용 범위 확대		공간 문제		공동이용		영구보존		기타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28	19%	39	26%	40	27%	41	28%	1	1%	149

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68.96점이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은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의 필요성 및 시의성은 물론, 인쇄학술지 소멸 폐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90%의 응답자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6%였다. 이러한 결과를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83.56점이다. 또한 인쇄학술지 공

동보존센터 구축 사업을 국가적인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84%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78.69점이다(〈표 12〉, 〈표 13〉 참조).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가 설립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냐는 문항에는 “그렇다”가 56% (83개 기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긍정적 방향(매우 그렇다, 그렇다)으로 응답한 기관의 비율은 69%(102개 기관), 부정적 방향(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기관의 비율은 5%(7개 기

〈표 11〉 인쇄학술지 소멸 폐해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보통이다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15	10%	87	58%	43	29%	4	3%	-	-	149

〈표 12〉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69	46%	65	44%	13	9%	1	1%	1	1%	149

〈표 13〉 공공사업으로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50	34%	74	50%	22	15%	3	2%	-	-	149

관)로 유보적 입장을 보인 27%(40개 기관)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기관이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9.13점으로, 이는 전체 응답기관 중 69.13%가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4〉 참조).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에 참여 이유에 대해서는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를 통해 자관 소장 자료의 한계를 넘는 자료 제공이 가능”이 24%(77개 기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자학술지 구독 중단이나 출판 중단으로 인한 이용불가 상황에 대한 대비”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인쇄학술지 보존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등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들이 단순히 공간 부족, 인력과 예

산의 절감 등의 관리적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설립 및 운영 주체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쇄학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에 참여가 예상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존 측면뿐만 아니라 활용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표 15〉 참조).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가 설립되면 학술정보 보존 및 공유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데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약 83%의 응답자가 학술지 보존 및 공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76점이다(〈표 16〉 참조).

〈표 14〉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참여 의사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19	13%	83	56%	40	27%	7	5%	-	-	149

〈표 15〉 인쇄학술지 공동보존 및 활용 참여이유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대학		연구소		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자학술지 구독중단·출판중단으로 인한 이용불가 상황에 대한 대비	41	22%	13	23%	4	27%	8	30%	10	33%	76
인쇄학술지 보존공간 부족 문제 해결	36	20%	12	21%	4	27%	5	18%	6	20%	63
인쇄학술지 보존 및 보존공간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절감	32	17%	7	12%	2	13%	3	11%	5	17%	49
인쇄학술지 기관으로 생기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	29	16%	11	19%	2	13%	3	11%	4	13%	49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를 통해 자관 소장 자료의 한계를 넘는 자료 제공이 가능	47	25%	14	25%	3	20%	8	30%	5	17%	77
계	185	100%	57	100%	15	100%	27	100%	30	100%	314

〈표 16〉 공동보존센터의 보존 및 공유의 거점 역할 수행 기여도에 대한 분석 결과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보통일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35	23%	90	60%	20	13%	3	2%	1	1%	149

〈표 17〉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의 장애요인

구분	대학		연구소		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력부족	19	8%	6	7%	2	8%	2	5%	2	6%	31
관련기관간의 비협조	41	18%	17	20%	2	8%	10	25%	3	9%	73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상충	45	20%	18	21%	5	20%	6	15%	6	17%	80
설립 및 운영 예산	63	28%	21	25%	9	36%	10	25%	14	40%	117
법-제도적 요인(저작권 문제 등)	60	26%	22	26%	7	28%	12	30%	9	26%	110
기타	0	0%	0	0%	0	0%	0	0%	1	3%	1
계	228	100%	84	100%	25	100%	40	100%	35	100%	412

〈표 18〉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과 관련한 참여 기관의 역할 분석 결과

구분	대학		연구소		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쇄학술지 활용	69	48%	26	49%	6	38%	14	70%	9	39%	124
정책적 의사결정	19	13%	5	9%	1	6%	1	5%	3	13%	29
인력지원	3	2%	1	2%	1	6%	0	0%	0	0%	5
예산분담	7	5%	4	8%	2	13%	0	0%	0	0%	13
학술지 기탁	46	32%	17	32%	6	38%	5	25%	10	43%	84
기타	0	0%	0	0%	0	0%	0	0%	1	4%	1
계	144	100%	53	100%	16	100%	20	100%	22	100%	256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으로는 “설립 및 운영 예산”으로 응답하는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 문제 등의 법-제도적 요인” 및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응답 역시 높게 나타났다(〈표 17〉 참조).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과 관련한 참여 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문으로는 인쇄학술지 활용이 49%(124개 기관)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학술지 기탁 역시 33%(84개 기관)로 높게 나타났다(〈표 18〉 참조).

4.3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쇄학술지 보존 범위,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운영 주체, 운

영 비용 조달 주체, ILL / DDS 비용 부담 주체,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소장 자료의 소유권, 공동보존센터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인쇄학술지 보존 범위와 관련해서 인쇄학술지를 국내 학술지는 연구재단 등재/후보지와 기타 학술지로, 해외 학술지는 SCI급, SCIE/SCOPUS 급, 기타 학술지로 세분화하였다. 이와 같이 세분화한 개별 인쇄학술지 범주를 대상으로 공동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을 조사·분석하였다.

국내 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대한 공동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응답한 기관의 비율은 87%(130개 기관)로 다수의 기관이 국내 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의 공동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점 척도 기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9.69점으로 나타났다. 국내 학술지(기타 학술지)에 대한 공동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은 긍정적 방향으로 응답한 기관의 비율은 68%(101개 기관)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9.79점으로 나타났다.

해외 학술지(SCI급)에 대한 공동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긍정적 방향으로 응답한 기관의 비율은 93%(138개 기관)로 나

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4.39점으로 나타나 절대 다수의 기관이 해외 학술지(SCI급)에 대한 공동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학술지(SCIE, SCOPUS급)는 긍정적 방향으로 응답한 기관의 비율은 92%(137개 기관)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3.38점으로 다수의 응답자가 해외 학술지(SCIE, SCOPUS급)에 대한 공동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학술지(기타 학술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76%(113개 기관)이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3.38점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을 범주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표 19〉와 같이 범주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범주의 인쇄학술지를 보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범주의 인쇄학술지의 보존 역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인쇄학술지의 공동보존센터에 기탁된 인쇄학술지 보존 시 몇 부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 〈표 20〉과 같이 “1종 2책”이 50%·75개 기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종 3책, 1종 1책과 1종 4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보존 범위

학술지 유형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67	45%	63	42%	5	3%	8	5%	6	4%	149
국내학술지(기타 학술지)	32	22%	69	46%	38	26%	5	3%	5	3%	149
해외학술지(SCI 급)	78	53%	60	40%	5	3%	1	1%	5	3%	149
해외학술지(SCIE, SCOPUS 급)	74	50%	63	42%	6	4%	-	-	6	4%	149
해외학술지(기타 학술지)	29	20%	84	56%	27	18%	3	2%	6	4%	149

〈표 20〉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보존 부수

1종 1책		1종 2책		1종 3책		1종 4책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9	6%	75	50%	56	38%	9	6%	149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인쇄 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설립 및 운영 주체로 누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표 21〉과 같이 KESLI (KISTI 및 KESLI 참가 기관, 37%, 55개관)와 국가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36%, 53개관)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국가기록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인쇄 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운영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표 22〉와 같이 “국가”가 83% (123개 기관)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 기관, 참여 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가 또는 운영 기관과 참여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인쇄 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운영 비용과는 별도로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호 대차서비스(InterLibrary Loan)와 원문복사서비스(Document Delivery Service)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표 23〉과 같이 “참여기관”이 41%(61개 기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청자 개인, 국가, 운영 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에 기탁된 인쇄 학술지 중 공간상의 이유로 最善本만 남기고 복본을 폐기한다면, 남은 最善本은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표 24〉와 같이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와 참여기관 공동소유”

〈표 21〉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대한 분석 결과

국가도서관		KESLI		KERIS		별도의 국가기관(국가기록원)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53	36%	55	37%	27	18%	14	9%	149

〈표 22〉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운영 비용 조달 주체에 대한 분석 결과

국가		운영기관		참여기관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123	83%	17	11%	9	6%	149

〈표 23〉 ILL / DDS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분석 결과

국가		운영기관		참여기관		신청자 개인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24	16%	13	9%	61	41%	51	34%	149

가 59%(88개 기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참여기관 공동소유 순으로 나타났다.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유형에 대한 선호도 분석결과에서 권역별 보존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중형 보존센터에 대한 선호도는 32%, 주제별 보존센터는 30%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권역별 거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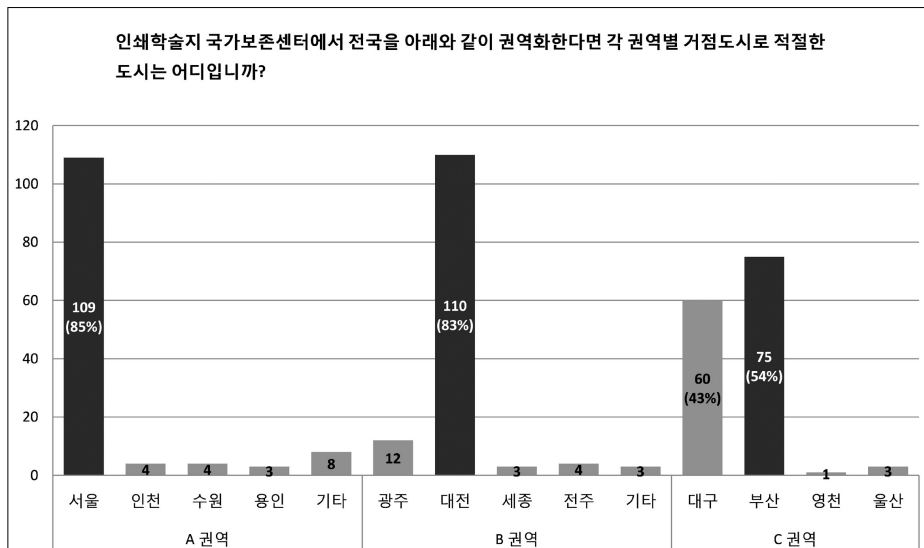
시로 어디가 적합하냐는 질문에 〈그림 1〉과 같이 A 권역에서는 “서울”이 85%·109개 기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수원, 용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B 권역에서는 “대전”이 83%·110개 기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 전주, 세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 권역에서는 “부산”이 54%·75개 기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울산, 영천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소장 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분석 결과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참여기관 공동소유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와 참여기관 공동소유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35	24%	26	17%	88	59%	149

〈표 25〉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유형에 대한 기관 유형별 선호도 분석 결과

집중형 보존센터		권역별 보존센터		주제별 보존센터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48	32%	56	38%	45	30%	149



〈그림 1〉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권역별 거점도시에 대한 선호도 분석결과

5. 이해관계자 분석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였으며,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에 대한 인식, 이해관계, 공동보존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5.1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에 대한 인식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는 공간 문제, 인적자원 활용, 인쇄학술지의 재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으로는 공간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현재 도서관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용도가 낮은 자료나 전자 아카이브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폐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쇄학술지 관리와 관련한 인적자원 역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 문제 및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이유로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 대학들마다 뭐 우리는, 물론 재정이 좋은 대학들은 도서관을 신축해서 자기들이 해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많거든요, 못 지어요, 폐기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면(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가 구축된다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더군다나 인력적인 부분도 좋을 거 같아요.

5.2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에 대한 이해관계자 영향력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에서 파악한 주요 이해관계자는 KISTI, 해외학술지지원센터, 대학도서관, 출연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등의 국가도서관이다. 이들의 영향력 및 관심사는 서로 상이하므로 이들의 서로 다른 관심사를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 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및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5.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로는 KISTI가 조사되었다. KISTI가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설립 및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KISTI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로는 KISTI의 KESLI의 경험을 통한 공동보존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KESLI 참가 기관의 참여 유도, 해외학술지 지원센터의 공동보존센터 영향력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 등으로 나타났다.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KISTI의 KESLI 경험으로부터의 KESLI 참가 기관의 참여 유도 및 성공적인 보존센터 구축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KISTI가 KESLI나 NDSL 서비스를 통해 메타데이터나 원문복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험 및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동보존센터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KESLI 참가 기관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이 공동보존센터에 참여한다면 공동보존센터 역시 포괄적인 주제 영역의 인쇄학술지를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반면, KISTI의 영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파악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KISTI의 정체성 및 대학도서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과 연계가 있다. 첫째, KISTI 기관의 정체성이 전문도서관에 가까우며 학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둘째, 대학도서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문제에 있어서 학술지 수집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학술지 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외학술지 지원센터나 대학도서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타 의견으로 KISTI의 NDSL의 과학기술분야의 집중성으로 인해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가 추구하는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는 보존센터 구축과 목적 및 기능이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가 집중형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KISTI의 영향력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5.2.2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영향력은 대체적으로 높게 파악되었으나 이에 대한 의견 역시 상이하게 나타났다.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영향

력이 긍정적으로 파악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 측면이다. 이미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통해 분담수서, 보존의 기능 역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기 구축된 경험 및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탁 가능한 인쇄학술지가 충분하다는 측면이다.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는 기탁 및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가 많은 도서관임을 고려할 때, 이들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질 것이며, 관심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유는 외국학술지 지원센터가 본래의 기능이 보존이 아니므로 보존이라는 인쇄학술지 보존센터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는 출연연구소의 협력을 유도할 수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 역시 파악되었다.

5.2.3 개별 기관(출연연구소/도서관)

학술지 기탁 및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이 기탁할 학술지가 많은 경우, 영향력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연구소 및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인쇄학술지의 수량이 공동보존센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5.2.4 국가도서관

국회도서관 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국가도서관은 기능 및 역할에서 대국민 서비스나 국회 입법기능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와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추후 이러한 기관과의 협력 시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대학도서관 평가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 보존센터에 두는 자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F : 저는 소유권이 양면성이 있는 게 이런 평가나 지표 때문에 소유권을 도서관이 가져야 하나 그러다가도 일단 준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대신 나중에 이용권이든지 그런 쪽에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3 활성화 방안

면담을 통해 성공적인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고려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5.3.1 기관의 참여 유도 방안 마련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인쇄학술지를 기탁할 수 있는 기관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 평가에 있어서 장서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평가 시스템을 고려할 때, 자료에 대한 소유권이나 평가 가중치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인쇄학술지를 기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공동보존센터의 운영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참여기관에 대한 서비스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5.3.2 인쇄학술지 수집 및 보존 범위 명확화

인쇄학술지 수집 및 보존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인쇄학술지를 기탁하는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면담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사항이다. 이는 향후에 기관에서 기탁하고자 하는 인쇄학술지와 공동보존센터에서 개별 기관에 기탁을 요청하는 자료 사이의 충돌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면담을 통해 기관이 기탁하고자 하는 인쇄학술지는 전자저널로 대체가 되는 학술지, 국내 학회 등을 통해 대체 가능한 국내 학술지, 이용도가 낮은 학술지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항은 인쇄학술지 수집 및 보존 정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5.3.3 계속 구독의 보장

계속 구독의 보장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보존은 현용 인쇄학술지는 아니지만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보존이 결정된 인쇄학술지의 아카이빙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인쇄학

C :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폐기도 했으니까 뭐 보낼 의사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서수가

술지 수집 및 보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탁 기관에 요청을 하고 Current Issue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처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B : 아카이빙을 앞으로 채워나가야 되잖아요. 채워나가는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무작정 다 우리한테 보내라 이렇게 무작위로 수집하는 거보다 어떤 타이틀을 정해가지고 미리 할당을 해 준다던가 그러면 일종의 분담수서도 가미된 플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결과 면담에서 파악한 주요 이해관계자는 KISTI, 해외학술지 지원센터, 대학도서관, 출연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등의 국가도서관이다.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이들의 관심 및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려사항을 공동보존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협력 모델을 구성할 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급격한 학술정보량의 증대로 대부분의 학술도서관은 자료 보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인쇄학술지 수집, 보존, 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설문 참여 기관 중 대다수의 기관(67%, 101개 기관)이 인쇄학술지 보존 공간에 여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인쇄학술지 보존공간의 수장 가능 기간이 4년도 남아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0%(30개 기관) 만이 인쇄학술지 보존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개별 기관들이 보존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해결 방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2%(33개 기관)의 기관이 최근 3년 사이에 인쇄학술지를 폐기하였으며 39%(57개 기관)의 기관이 향후 인쇄학술지 폐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쇄학술지 폐기 사유를 공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63%(94개 기관)에 이르고 있어, 인쇄학술지 폐기의 주요 이유가 공간 부족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KESLI 참가 기관들이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장 인쇄학술지를 폐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내 기관들이 확보한 학술자원이 적절한 보존 과정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폐기되는 인쇄학술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보존하고 공동 활용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종합한 결과,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학술정보 보존 및 공유의 거점 역할, 국가적 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 시급성 및 시의성, 보존 미실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쇄학술지 소멸 폐해의 심각성, 관련 기관의 협조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

여 이유 역시, 공간 부족 문제 해결,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절감, 자관 소장 자료의 한계를 넘는 자료 제공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관이 관리적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참여하고자 함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설립 및 운영 시 보존 측면뿐만 아니라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설립 및 운영예산의 부족, 저작권 문제 등의 법-제도적 요인,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상충 등 성공적으로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를 구축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자 하는 역할이 인쇄학술지 기탁 및 활용 등에 제한되고, 인력 지원이나 예산 분담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충분한 예산이나 인력지원이 전제되어야 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참여 및 공동보존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설립 및 운영 주체로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시한다. 운영 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37%(55개 기관)이 KESLI(KISTI 및 KESLI 참가 기관)를 선택하여 설문 응답 기관들이 KESLI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ESLI와 국가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선호도 차이가 2%(2개 기관)에 불과해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포커스그룹 면담에서는 의견이 달라졌으며, 국립대학 도서관이나 규모가 큰 대학도서관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에서 기관의 역할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없이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은 불가능하다. 인쇄학술지를 공동 보존하고 있는 해외 사례 역시 운영 및 수집협의회(Council)를 구성하여 보존 자료의 선정 및 저장 위치,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고 있다(최재황, 박승진 2013).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협의체는 KESLI, 대학도서관, 출연연구소, 해외학술지 공동보존센터가 함께 모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존센터 설립과 관련한 초기 운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동보존센터와 기탁 도서관이 공동 소유할 것을 제시한다. 운영 비용에 대한 설문결과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되는데, 최재황, 박승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참여기관들이 운영 비용을 분담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민간 주도의 인쇄학술지 보존센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적 수준의 인쇄학술지 보존센터의 수립을 위해서는 운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다만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운영 중에 참여기관이 납득할 만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이 운영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소장 자료의 소유권은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나 참여기관 일방보다는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와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재황, 박승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인쇄학술지를 기탁한 참여기관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 사례와 국가주도형의 보존센터와는 차이가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참여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참여기관이 운영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과 인력, 운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동보존센터의 경우에는 인쇄학술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위의 사례들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소장 자료의 소유권은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나 참여기관 일방보다는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와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되, 다만 기탁된 인쇄학술지의 소유권을 어느 선까지 부여할지, 부여된 소유권을 어떻게 명기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존 대상 인쇄학술지 범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한다. 설문 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범주의 인쇄학술지를 보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모든 범주의 인쇄학술지를 보존하는 공동보존센터 설립은 경제적, 공간적 제약을 고려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존 우선 순위 및 위험 수준에 따라 인쇄학술지 유형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한다. 미국 WEST(West Regional Storage Trust) 프로그램의 경우 인쇄학술지의 위험 수준과 범주에 따라 인쇄학술지 범위를 5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보존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동보존 및 활용 대상 인쇄학술지의 범주를 확대시켜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보존센터 유형으로는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의 선호 유형을 조사·분석한 결과, 권역별 보존센터가 가장 선호하는 보존센터 유형으로 나타났다.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의 접근성, 경제성, 이용 가능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역 보존센터를 확대하는 방안(3+2 방안)을 제안한다.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 초기에는 3곳(서울, 대전, 부산)에 보존센터를 구축하고,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후 광주, 대구, 세종시 등에 추가적인 보존센터 2곳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쇄학술지 보존의 '지역 균형 보존 및 이용'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 고려사항으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와의 목적 및 기능면에서의 차별성 확보, 기관의 참여 유도 방안 마련, 공동보존센터 보존 인쇄학술지 수집 및 보존 범위 명확화, 타 시스템과의 일원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한 유연한 서비스 제공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공동보존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협력 모델을 구성할 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설문 및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인식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시한 공동보존센터 구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제안 및 고려사항은 향후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공동보존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모색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현민. 2006.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9-53.
- [2] 광동철, 심경, 윤정옥. 2007. 해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51-78.
- [3]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 거점 국립대학 도서관의 최대 적정 소장 책 수 및 소장 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4] 윤정옥, 심경, 광동철. 2007.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25-51.
- [5] 이선희, 윤희윤. 2011. 과학기술자료 보존공간 분석과 확충방안 연구: KISTI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42(4): 59-74.
- [6] 이선희, 황혜경, 류범중. 2010. 과학기술 정보자료 보존관리: 현황분석 및 미래예측. 『KISTI 지식리포트』, 11. [online]. [cited 2013.1.26].
〈http://icon.ndsl.kr/upload/i_report/1278378076515.pdf〉.
- [7] 최재황, 광승진. 2013. 인쇄학술지의 공동보존 프로그램 정책 비교. 『사회과학연구』, 24(2): 253-272.
- [8] 최호남, 이응봉. 2005. 해외 전자저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161-183.
- [9] 황혜경, 이선희, 최호남, 서혜란. 2010. 과학기술정보의 아카이빙 체제 구축. 『KISTI 지식리포트』, 9. [online]. [cited 2013.1.26]. 〈http://icon.ndsl.kr/upload/i_report/1266829135252.pdf〉.
- [10] ASERL Collaborative Journal Retention Program, [online]. [cited 2013.2.5].
〈<http://www.aserl.org/programs/cooperative-journal-retention/>〉.
- [11] CAVAL Archival and Research Materials Centre, [online]. [cited 2013.2.5].
〈<http://www.caval.edu.au/carm.html>〉.
- [12] 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Shared Print Repository, [online]. [cited 2013.2.5].
〈<http://www.cic.net/Home.aspx>〉.
- [13] MedPrint. 〈<http://www.nlm.nih.gov/psd/printretentionmain.html>〉,
[online]. [cited 2013.2.5]. 〈<http://www.cic.net/Home.aspx>〉.
- [14] OhioLink Regional Depositories Serials Preservation Program, [online]. [cited 2013.2.5].
〈<http://www.ohiolink.edu/>〉.
- [15] UK Research Reserve, [online]. [cited 2013.2.5]. 〈<http://www.ukrr.ac.uk/>〉.
- [16] University of California Regional Library Facilities, [online]. [cited 2013.2.5].
〈<http://www.srlf.ucla.edu/>〉.

[17] Western Regional Storage Trust, [online]. [cited 2013.2.5]. <<http://www.cdlib.org/west>>.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Hyen-Min. 2006.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and Repository Library by Using of Public Library Cooperative Net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29-53.
- [2] Kwack, Dong-Chul, Shim, Kyung, & Yoon, Cheong-Ok. 2007. "The Cooperative Storage Facilities for Academic Libraries in Other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51-78.
- [4] Yoon, Cheong-Ok, Shim, Kyung, & Kwack, Dong-Chul. 2007.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Cooperative Storage Facility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25-51.
- [5] Lee, Seon-Hee, & Yoon, Hee-Yoon. 2011. "A Study of ST Material Storage Space Analysis and Expanding Plan: Case Study for KISTI."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2(4): 59-74.
- [6] Lee, Seon-Hee, Hwang, Hye-Kyong, & Ryu, Beom-Jong. 2010. "Scientific Technology Information Resource Archives Manage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Reports."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11. [online]. [cited 2013.1.26]. <http://icon.ndsl.kr/upload/i_report/1278378076515.pdf>.
- [7] Choi, Jae-Hwang, & Kwak, Seung-Jin. 2013. "Policy Comparison of Cooperative Preservation Programs for Printed Journals." *Journal of Social Science*, 24(2): 253-272.
- [8] Choi, Ho-Nam, & Lee, Eung-Bong. 2005.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Building a Digital Archive of Electronic Journ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161-183.
- [9] Hwang, Hye-Kyong, Lee, Seon-Hee, Choi, Ho-Nam, & Suh, Hye-Ran. 2010. "Archiving System Development for Scientific Technology Information Resources."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9. [online]. [cited 2013.1.26]. <http://icon.ndsl.kr/upload/i_report/1266829135252.pdf>.

